

Park Jungsook

Min Harim

12.07 - 12.29

탈경계 색동화
정원사

De-Boundary
Gardener

MANSION9

일상 속 낭만(浪漫)의 순간을 붓질하며, 지각의 경계를 넘나들다

삶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인류는 해당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일생을 바치며 연구하기도, 축적된 지표를 해석하기도 하며 다양한 분야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그러나 과연 그 본질이라 함은 우리의 인생에서 멀리 그리고 저 심연 깊숙이 심원한 학문과 지식으로 저술할 수 있는 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삶의 본질은 누가 어떤 삶을 어떻게 일궈내는가에 따라 각자의 해답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맨션나인은 <De-Boundary Gardener 탈경계 정원사>를 통해 규정된 지각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각자의 시선으로 일궈낸 삶의 정원을 화폭에 그려 나가 새로운 풍경을 제시하는 민하림, 박정숙 두 작가를 소개한다.

민하림 작가는 가상과 현실이 혼재하는 이미지의 파도 속, 현대인의 삶을 수조(水槽)에 비유하며 독창적인 인공수조 풍경을 그린다. 물고기를 키우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조 내부를 인공적인 수풀과 장식들로 조성하는 모습이, 마치 현대인들이 인생이라는 틀 안에서 묵묵히 개개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공적인 도시 모습과 유사하다는 작가의 위트가 담긴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수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세계는 일상 혹은 영화나 소셜미디어 등의 픽션, 논픽션 이미지를 채집하고 가공된 결과로 기존의 관념적인 지각을 흐리는 새로운 개념의 풍경을 탄생시킨다.

낭만, 낭 : 浪 물결 량 / 만 : 漫 질편할 만

지각의 경계를 드나들며 인간의 삶 속 불확실한 이미지 조각들을 마치 수족관 내 인공생태계의 장치로 풀어내던 민하림 작가의 인공수조 풍경은 2024년 변곡점을 맞는다.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며 단단한 수조 프레임이 담아내던 삶이 가지는 '유한성'에 대해 각성하는 시간을 보낸다. 큰 상실의 경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 본인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대상들, 그 힘찬 생명의 움직임들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곧 허망함과 무기력함이 다가왔지만, 그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 한 켠에 삶을 바라보는 '긍정'을 자리하기 위한 시도로 수족관을 뒤엎는다. 작가가 시사하는 긍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기 위함이 아닌 내 자신에게 닥친 휘몰아치는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민하림 작가는 삶을 긍정하기 위한 인정을 붓질로 승화하여 매 순간을 묵묵히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어둠에 빠지지 않고 수면 위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치유를 얻는다. 이번 신작에서는 유한한 삶 속에서 각자 지니는 '낭만'의 감각을 강조하며, 개인의 서사를 확장해 인간 삶의 본질에 더욱 집중한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선사한다. 유한성에 대한 각인을 통해 매 순간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낭만적 경험들을 작가는 기존의 물 속 이미지를 강조했던 시점을, 물결의 파동이 일렁이는 수면의 층으로 옮겨가며 살아있음의 근간이 되는 '물'을 과감하게 표현한다. 일상의 아름다운 대상들은 물결의 파동과 기포가 쌓여 더욱 과감히 일그러지며, 작가는 물의 흐름에 그 실존을 내맡기며 관객으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되문게 한다.

박정숙 작가는 삶을 살아가며 소소하게 포착가능한 일상의 흔적을 꽃, 바다, 산과 들 같은 자연의 심상으로 화폭에 남긴다. 박정숙 작가의 풍경화는 얼핏 보면 자연물이 제공하는 치유적 성향을 전하는 그 단편에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7세의 나이, 노장이 겪은 전장이 무수히 많듯 작가의 붓질은 곧 삶을 표현하는 무기이자 펜촉으로, 생을 함축한 일련의 방백(傍白)을 기록한다.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월남민으로서의 가정형편 때문에 현실에 치여 그림에 향한 열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작가가 좇고 있는 삶의 본질은 결국 끝없는 색과 대상에 관한 시각적 탐구였듯, 자녀가 장성한 후 반세기를 살아온 시점 다시 불 지핀 그 열정은 오늘날 4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작품 속 도상들에서 특히 꽃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기호를 엿볼 수 있다. 작품명에 명시되어 있듯 표면적으로는 정물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분에 담긴 꽃을 정측면으로 바라보는 시점은 17세기 네덜란드 지역에서 파생한 바로크 시대 정물화 구도와 유사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박정숙 작가가 해석한 '꽃'이라는 소재는 정물의 정적인 느낌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풍경의 꽃"으로 재탄생한다. 배경과 정물 꽃이 분리되지 않은 채 서서히 순화되어 나가는 붓터치와 부드러운 빛의 효과는 기존의 관념적인 원근법을 잊어버리며 강조되는 색감을 통해 작가가 집약하는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해볼 수 있다. 화폭을 조금 더 깊이 오래 음미하다 보면 곧 시야에 추상적인 색면과 두터운 물감층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다시 작품이 걸려있는 현실로의 지각을 유도하며 꽃의 정물적 역할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동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적 풍경으로 볼 수 있다.

50년. 반세기가 차이 나는 시대를 살아온 젊은 청년작가와 인생의 증인인 원로작가, 두 작가가 바라보고 붓질을 통해 해석하는 삶의 본질. 이는 대단히 심오한 철학도 사상도 아닌, 작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낭만에 충실할 뿐이다. 청년 그리고 원로작가가 조우하며 펼치는 이번 전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되새기며, 잠시 쉬어 가는 한 장의 페이지로 비추어 질 수 있길 바란다.



Min Harim

민하림 (b.1988)

학 력	2022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와 석사 졸업 2011 청주대학교 조형예술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졸업
개 인 전	2023 생의 잠식 (CICA Museum M Gallery, 김포) In spite of :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가산사옥 1층, 서울) 2022 가만한 표류 (MANSION9 방배, 서울) 2021 Keep Breathing (MANSION9 상수, 서울)
기 획 전	2024 YOUTH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 2023 Keep Moving (MANSION9, 서울) WUNDERKAMMER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2022 PRE-SEASON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시선의 높이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울) 빛, 소리 그리고 광화문,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RE : COVERY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 남양주) 2021 I : In your life (리바트 용산 아이파크몰, 서울) color 2021 (CICA 미술관, 김포) Emersing Artist NATURE&POP (대전 신세계 보이드) User (Oksangfactory, 서울) n개의 천호구역(CHEONHO ZONE) (강동문화재단, 서울) 2020 2020ASYAAF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작가의 방 (Art Stay 춘천일기, 춘천) 2019 제6회 한국,인도 청년작가 교류전 (Emersing canvas VI, 인도 박물관) (서울) 그 외 다수
수 상	2022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입상
작 품 소 장	2020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박물관

“삶을 살아내는 긍정, 유한함 속 낭만의 순간을 좇다”

민하림 작가는 가상과 현실이 혼재하는 이미지의 파도 속, 현대인의 삶을 수조(水槽)에 비유하며 독창적인 인공수조 풍경을 그린다. 수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세계는 일상 혹은 영화나 소셜미디어 등의 픽션, 논픽션 이미지를 채집하고 가공된 결과로 기존의 관념적인 지각을 흐리는 새로운 개념의 풍경을 탄생시킨다.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며 민하림 작가의 인공수조 풍경은 변곡점을 맞는다. 큰 상실의 경험은 삶이 가지는 '유한성'에 대해 각성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며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힘; 긍정을 찾는 시도로 이어진다. 작가가 시사하는 긍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기 위함이 아닌 휘몰아치는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신작에서는 유한한 삶 속에서 각자 지니는 '낭만'의 감각을 강조하며, 개인의 서사를 확장해 인간 삶의 본질에 더욱 집중한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선사한다.

Artist's Note

민하림 - 삶을 살아내는 긍정, 유한함 속 낭만의 순간을 쫓다.

나의 회화 작업은, 우리의 삶 형상의 근사치가 된다.

불확실성이 실상인 삶 속에서 살아내는 다양한 일상의 순간들을 수족관 인공생태계처럼 꾸미듯 캔버스 프레임에 재현한다. 수족관 구성을 차용하여 표현하는 이 일련의 작업을 통해 삶 본질의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사유의 과정에서 최근 본인이 겪게 된 어머니 죽음의 사건을 통해 삶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유한함'을 각성하게 된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상실하는 경험을 겪고 삶을 영위하며 자리잡았던 대다수의 선입견과 합리성 등이 깎이고 잘려 나가며 아주 작은 소박함, <낭만>만이 남게 된다.

살아가는 힘을 가진 삶들은 다 제각기 낭만을 품고 있다. 낭만은 허황된 꿈이나 유토피아 같은 개념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하고 있지 않다. 낭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충만하게 매꿔준다.

사전적으로 낭만의 낭[浪]은 물결을 의미하고 만[漫]은 질편하고 흐트러짐을 의미한다. 복잡하고 자기실현과 증명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낭만의 어휘와 같이 삶의 물결에 질편해지고 흐트러질 수 있는 감각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본질일 수 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하루는 낭만이라는 감각에 충만해져야 함을 필요로 한다.

그런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드러난 수족관 시리즈 속에 생명이 생명 있음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은 '물'이다. 하지만 수조 안에서 물은 생명의 근간이 됨과 동시에 고인 것에 불과하다. 수조 안에 생명이 썩지 않고 살 수 있음은 그 고인물이 인공장치를 통해 흐르고 일렁이기 때문이다. 수족작품 세계 속에서 새로이 나타난 일그러진 물의 형상은 고인 것이 생명이 되기 위해 힘써 애쓰는 작은 발버둥으로 표현되고, 이 힘씀은 오늘의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낭만으로 감각되고자 한다.

수족관 작품 속에서 물의 일그러짐은 숙명적인 것이고, 생명을 유지 시켜주는 필연적인 움직임이다. 살아 내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일상의 대상들은 더 과감히 일그러지며 물 흐름에 자신의 실존을 내맡긴다.

오늘의 낭만으로 응집된 삶은 수족관 안에서 일렁이며 유평한다.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마주함과 외면 사이

Oil on canvas

2024

130.3x162.2 cm (10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Brown muffin

Oil on canvas

2024

91x116.8 cm (50号)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In Spite Of_낭만 1

Oil on canvas

2024

90.9x72.7 cm (3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In Spite Of_낭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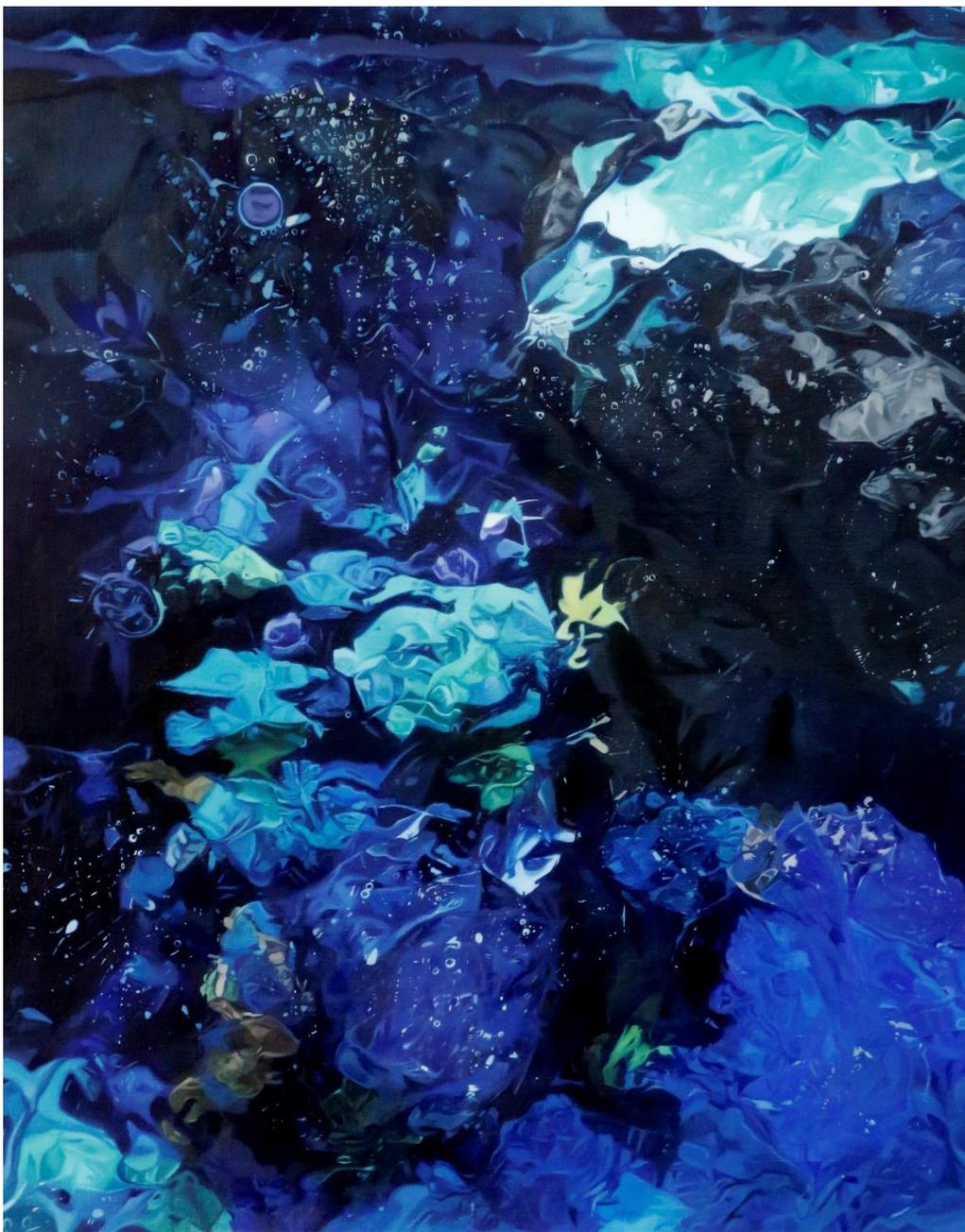
Oil on canvas

2024

90.9x72.7 cm (3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In Spite Of_남만 3

Oil on canvas

2024

72.7x90.9 cm (3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In Spite Of_낭만 4

Oil on canvas

2024

45.5x53 cm (1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In Spite Of_낭만 5

Oil on canvas

2024

45.5x53 cm (1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스치는 잠결

Oil on canvas

2024

45.5x53 cm (1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잠길때가 오면

Oil on canvas

2024

45.5x53 cm (1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동상이몽

Oil on canvas

2023

91x91 cm (5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RED CANVAS

Oil on canvas

2023

91x91 cm (50호)

[De-Boundary Gardener]

Art Works



She's not crying

Oil on canvas

2023

91x91 cm (50호)

작품 문의

변승연 큐레이터
tmddus97@mansion9.co.kr
070-4267-7371
010-5144-6658

(상담 가능 시간 : 10:30-19:00)



<https://www.mansion9.co.kr/>

@mansion9_official